

V. 主要 經濟 이슈 解說

○ 증권감독원, 企業 合併에 관한 규정 개정, 96년 시행(8. 26)

- 상장 기업과 주식 시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상장 기업의 합병 불허 방침

○ 교육부, 96년부터 담배에 教育稅 부과(8. 27)

- 담배에 소비세와 별도로 100원씩 교육세 부과(교육재정의 규모:GNP의 5%로 확충)

○ 재정경제원, 96年 豫算案 63조 원 규모(8. 28)

- 95년보다 14.9% 증가(일반 회계 58조 원, 재정 투·융자 특별회계 5조 원)

- 한국 통신 매각 연기(96년 중)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

○ 건설교통부, 아파트 분양가 原價連動制 시행 지침 마련(8. 28)

- 아파트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안전도 제고 목적

- 이에 따라 전용면적 25.7평은 3.4% 인상, 15.7평은 8.9% 인상 효과

○ 증권감독원, 企業 公示制 대폭 강화(8. 28)

- 기업 내부 정보 공시 기간 단축(현재 2~3일 내→24시간 이내)

○ 통상산업부, 자동차 산업 長期 發展案 및 戰略案 마련(8. 29)

- 자동차 생산량을 2005년까지 年産 400만 대로 육성하여 세계 4~5위권 목표

- 연간 설비 투자 2.6조 원, 연구 개발 투자 1.6조 원 등을 투자하도록 독려

○ 민자당·기협중앙회, 中小企業 與信禁止 業種 撤廢 재검토(8. 29)

- 소비성 서비스업종 대출제한 철폐로 제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검토

- 사양업종의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할 경우 사업전환자금 지원 또는 세제 혜택 방안 검토

○ 통상산업부, 30大 企業 소속 中小企業 中企 범위에서 제외(8. 31)

- 외형적으로 중소기업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 30대 대기업 집단에 속한 중소기업(지분율 50% 초과 중소기업)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따른 세제·금융지원 제외

○ 재정경제원, 95稅法 改正案 확정 발표(9. 1)

- 근로자 세부담이 96년부터 20~30% 가량 축소

- 상속·증여·양도세의 최고 세율을 10~15% 인하

○ 재정경제원, 銀行 合併에 稅制 支援(9. 4)

- 은행등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시 발생하는 법인세 등을 감면

- 금융기관이 흡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규정 개정

○ 재정경제원, 關稅法 改正案 발표(9. 4)

- 96년 하반기 이후 수출입 면허제를 허가제로 전환, 통관 기간 단축(15일→2~3일)

○ 재경원, 金融所得綜合課稅 내용 수정(9. 6)

- CD, CP등 만기전 양도 가능한 모든 채권의 이자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